

통근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손연정*

한국인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을 위해 평균 1시간 12분을 쓴다. 통근시간은 매일 소비되지만, 그 자체로 효용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들은 '낭비되는 시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통근시간의 증가는 삶의 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10분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의 소득이 19% 감소하는 것과 같은 직장만족도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atterjee et al., 2017).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도 통근시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의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오진욱·오세미, 2023), 통근시간의 증가가 출산자녀 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인 연구도 있다(Kim et al., 2019). 이처럼 장시간 통근이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통근시간이 길면 자녀양육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비수도권(1시간 3분)의 1.5배 수준이며,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평균 0.72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통근시간의 사회적 비용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연구도 있는데, 국내 민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시간의 직접비용인 교통비와 시간의 기회비용을 더했을 때 연간 19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중앙일보, 2023. 8. 22.). 여기에 장시간 통근이 유발하는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통근시간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통근시간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나치게 긴 통근시간이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은 다양한 통계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처럼 통근시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근시간에 대한 연구는 도시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혹은 교통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통근시간을 노동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는 실증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통근시간이 노동시간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어온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도심 외곽개발 중심의 신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kysyj@kli.re.kr).

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통근시간은 점차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노동리뷰 2024년 7월 특집은 '통근시간'이라는 주제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첫 번째 원고인 「통근시간 실태와 통근시간 결정요인 분석」은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성별 통근시간 격차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에 비해 긴 이유는 혼인상태와 어린 자녀의 유무 등 시간 제약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통근시간이 짧은 대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일자리 선택에 있어 시간 제약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원고인 「자녀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변화 : 코로나19 영향과 성별 차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11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통근 확률과 통근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공적 돌봄의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자녀돌봄의 부담을 책임지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원고는 「통근시간이 소득과 시간의 결합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기서는 소득과 시간을 모두 고려한 이분량 빈곤선을 구축하여 통근시간이 소득-시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통근시간이 길수록 빈곤 가구일 가능성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 취업 활동을 하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과 시간의 결합 빈곤에 처할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노동리뷰 특집 원고 세 편은 공통적으로 통근시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세 편의 원고 모두 어린 자녀를 둔 취업 여성들의 시간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일자리 선택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교수가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의 주된 원인이 모성효과(motherhood effect)에 있음을 지적한 것과도 논의의 맥을 같이 한다.

통근시간이 통근자들의 합리적인 입지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시장주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통근시간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불필요한 개입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통근시간의 성별 격차가 젠더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드러난 결과라면, 이를 사회갈등의 한 영역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노동리뷰 특집의 필자들은 통근시간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와 장거리 통근에 따른 시간 빈곤성 및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택근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를 연계한 도심거점 오피스 활성화 등 공간구조 차원에서의 직주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촉구하였다. 특히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

성들에게 일자리 선택 반경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서비스 강화와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노동리뷰 특집이 우리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가정 양립 문제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KLI**

[참고문헌]

오진욱·오세미(2023), 「대출 청년층 이직의도 영향요인 변화」, 『지역산업과 고용』, pp.104~118.

중앙일보(2023. 8. 22.), 「'왕복 3시간' 지옥 출퇴근, 삶이 구겨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333>

Chatterjee, K., B. Clark, A. Martin, and A. Davis(2017), “The Commuting and Wellbeing Study: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mmuting on People’s Lives,” UWE Bristol, UK.

Kim, Y. Y., H. J. Kang, S. Ha, and J. H. Park(2019), “Effects of living in the same region as one’s workplace on the total fertility rate of working women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41.